

번뇌 많은 '코리아' 화쟁사상으로 해결한다

화쟁순례 선언식...3월3일부터 100일 대장정

이념 계층 망라 각계대표 108인 위원 선정

전국 14개 광역도시 거쳐 '함께 하는 길'로...

“3·1정신으로 우리 안의 삼팔선과 철조망을 녹이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의 길 떠날 것을 선언한다. 100일 동안 분열의 벽을 넘어 친구로 이웃으로 민족으로 함께 하는 길을 열어가겠다.”

화쟁코리아 100일순례 추진위원회(상임추진위원장 도법스님)가 지난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화쟁순례 선언식을 개최하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쟁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불교계 안팎에 공식 천명했다.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에 화쟁의 메시지를 전하는 화쟁순례는 오는 3월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 천고제를 시작으로, 3월3일부터 본격적인 순례에 나선다. 전국 14개 광역도시를 거쳐 6월10일 서울 광화문공원에서 마무리하는 대장정이다. 우리사회 갈등과 상생의 현장 곳곳을 순례하며 화쟁의 길, 화해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갈등해소를 위해 '3·1 정신'을 순례정신으로 삼았다. 지역, 이념, 계층, 남북 등 다양한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를 진실과 화해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3·1정신을 우리사회에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례지역 역시 근현대사에서 갈등과 대립을 상징할 만한 곳이나 현재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곳, 근현대사와 현재 화

쟁의 사례를 이뤄낸 곳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화염생명평화 절명상을 시작으로 매일 10~15km를 걸으며 순례를 이어 나가며, 하루 순례가 끝나고 소감나누기, 야단법석, 대중공사, 강연, 화쟁콘서트 등도 실시한다. 주말에는 생명평화행진과 국민통합 문화제 등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가족 등 불자들과 시민들의 화쟁순례 참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화쟁순례는 불교계가 주도해 우리사회의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섰다. 순례의 의미를 담은 선언문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과 정관계 인사, 교수, 언론인, 시인, 농부, 불교단체장 등 출가와 재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른 108명이 동참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는 자비와 화쟁의 크나큰 발걸음이다.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원용무애의 정신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대장정”이라며 “불교인들이 중심이 됐지만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순례의 길에 나서는 것은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언식을 갖고 3월3일부터 6월10일까지 100일간 순례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주요 선언 동참자들은 한반도 순례지도에 꽃을 꽂는 기념행사를 통해 화쟁순례 의지의 순례의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KCRP 대표회장 추대

8월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주최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아시아’ 총회 이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제8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CRP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단의 추대와 참석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대표회장을 맡게 됐다. 신인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2년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년간 KCRP 대표회장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신 김희중 전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종교교간 화합과 지역 KCRP의 활성화와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공동회장단을 대표해 김희중 전임 대표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이웃종교 스테이, 종교평화청년캠프, 예비성직자의 이웃종교 이해하기 등을 2014년 주요 사업으로 의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65년 서울에서 한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6개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 모임은 1986년 제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제종교기구와 유대관계를 갖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거듭났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은 KCRP 대표회장으로서 대규모 국제종교행사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8차 총회를 주최하게 돼 눈길을 끈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제8차 총회는 오는 8월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종교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종교간 평화운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총회 서울에서 한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6개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 모임은 1986년 제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제종교기구와 유대관계를 갖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거듭났다.

장영섭 염태규 기자

‘살신성인’ 부산외대 양성호 씨의 불교인연

4면

“종단이 나갈 방향 제시”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구성

위원장에 법등스님



서 “앞으로 일정이 촉박한 만큼 9~11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1994년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백서발간 등 당시 개혁의지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계종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스님·사진)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 내 실무 책임을 맡을 실행위원장에 법안스님을 임명하고 실행위원 구성 등을 위임했다. 또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식을 위해 3월6일 오후2시 제2차 회의를 열어 기념세미나, 백서 및 관련자 구술 자료집 발간, 사진 및 영상자료 전시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은 “이벤트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94년 개혁불사의 진정한 평가를 통해 종단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제7차 중무회의를 열고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기념사업을 주관하게 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전 호계위원장 법등스님을 추대했다.

또 추진위원으로 △중앙총무기관에서 교육원장 현응스님,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종훈스님, 기획실장 일각스님 △중앙총회에서 부의장 법안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일문스님,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 종회의원 영담스님 △개혁불사 관계자를 대표해 군중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효림스님,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 육문스님, 성태용 건국대 교수를 위촉했다.

허정철 기자 hpc@bulgyo.com

불사 실무 '북 콘서트' 각종 공연...

불교박람회 문화강좌 알차다

오는 3월6일 개막하는 2014 불교박람회는 여타 박람회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불교산악과 함께 불교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불교박람회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는 ‘북아트페스티벌’과 ‘무대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올해 무대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주목된다.

박람회 제1관 행사장 내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무대 프로그램은 산악과 문화, 철학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행사는 불사 실무 강이다. 3월7일 오후3시에 열리는 강연은 문화재시공업체의 시공과 이광복 도편수의 불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명법스님은 인문학으로 바라본 불교미술을 주제로 3월8일 오전11시 강의하고,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 서광스님은

같은 날 오후1시부터 ‘치유하는 불교읽기’ 북콘서트를 연다. 이어 오후4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빛나는 연등회를 미리 볼 수 있는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마지막 날인 9일 오전11시에는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화엄경 강의의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전승의례원의 경제어산(京制魚山) 범패시연이 개막식 공연과 함께 당일 오후2시 거행된다.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3월9일 오후3시 폐막식과 사찰음식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무대 프로그램은 오는 28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불교박람회는 3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불교박람회의 자세한 일정은 공식 사이트(www.bexp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페이지(www.bexpo.kr/m)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社告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본지·군종교구·불교TV 공동캠페인

불교신문과 군중특별교구, 불교TV는 군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로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추운 겨울 전방과 초소경계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햇배(손난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청년보건의 핵심인 군포교 활성화 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 바랍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91-000108(예금주:군중특별교구)

문의: 02-749-8646

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

임보살행론

산티데바 보살 지음 | 석해승 편역 | 366쪽 | 12,000원 | MP3 CD 석해승 스님 낭송

행복은 보리심에 달렸다

산티데바 보살의 ‘임보살행론’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후 보리심을 주제로 하는 논서 가운데 이보다 더 뛰어난 논서는 없다고 할 만큼, 보리심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자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담고 있어서 최근까지도 보리심에 관한 논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서로 꼽히고 있다.

gTan-dGehi sMon-Lam bCas
(보리심으로 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달라이 라마 —

www.buddhagaya.co.kr

감로의 정수

라망 평안공안사리 위한 지침서

따라나 저 · 윌라 베이커 영역
탄진 외승(석해승) · 가르마 운펜(허정훈) 한글
286쪽 | 14,000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

티벳의 수행자가 구전으로 전한
명상법의 정수 精髓

보리도처제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들이라 부르는 방대한 티벳의 람림수행을 요약해 근기에 따른 단계별 명상법을 제시